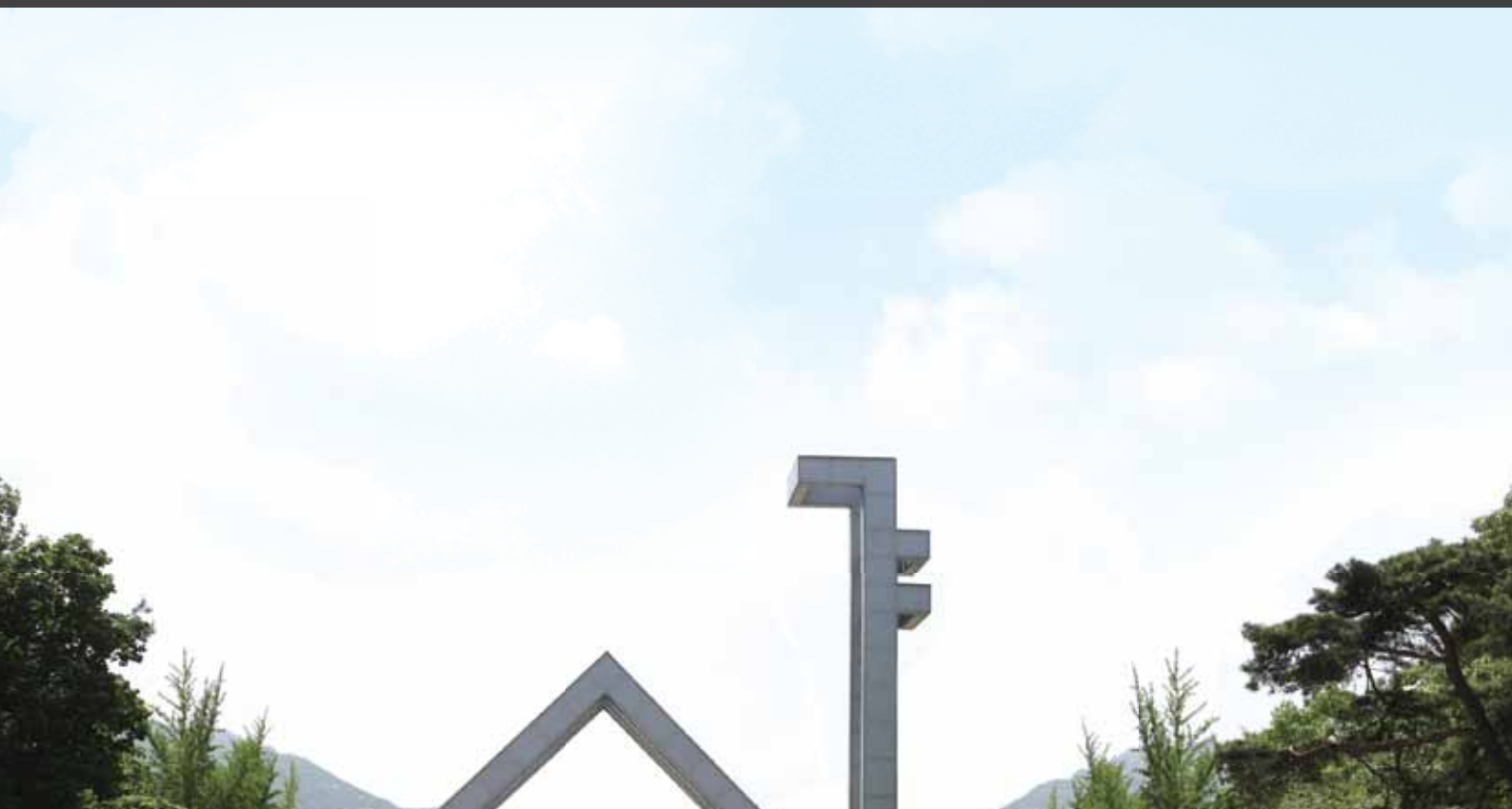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SNUAC

2013년도 연차보고서



목차

비전

인사말

소개

조직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동북아시아 센터 | 동남아시아 센터

대중문화 프로그램 | 마-중관계 프로그램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시민사회 프로그램 |

위험관리 프로그램 | 환경협력 프로그램 | ASIA CENSUS 프로그램

학술행사

외부 연구 지원사업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특별기획사업

출판

소식

후원 | 재정

연혁

사람들

비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인사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201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사업의 주요 성과와 현황을 정리한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목표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지식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과 연구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2013년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신축 건물의 개관과 더불어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는 등 본격적인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시대의 비전을 품고 연구소의 기틀을 다져온 초대 소장 임현진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자,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아시아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는 지난 한 해 수행한 사업들과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획하게 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 시대가 온다고 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저절로 잘살게 되는 것도, 아시아가 평화롭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아시아 공동체가 잘 되면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세기 유럽과 미국이 이룬 근대과학과 인문·사회 과학 등 근대 지식의 축적은 인류 문명에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인류의 행복과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

시에 제국주의 지배와 전쟁, 차별과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아시아의 세기는 서양의 근대를 넘어 새로운 '근대 이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지식 생산과 공유, 인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에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아시아와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주어진 책무일 것입니다. 아시아연구소는 현재 도약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발전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음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땅 밑에 이미 흐르고 있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지하수의 수맥을 찾아내어 새로운 아시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3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강병규

소개

아시아 시대에 걸맞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식 생산이 시대적인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관련 지식 및 콘텐츠, 전문 인력,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기초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07년 10월 건립 발의 후, 임현진 교수를 초대 소장으로 2009년 2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부터 기존의 서구 중심적 이론편제를 극복하고, 학문 연구와 교육의 자립화·토착화·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발전을 거듭해, 2013년 5월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대규모 단독 연구공간을 마련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강명화 교수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한걸음 더 진전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현재,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해 연구 기반을 마련 중이다.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특별강연, 워크숍, 국내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 '아시아 연구의 허브'라는 비전 위에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 간 긴밀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 2013년에는 2개 지역연구(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센터를 설립·운영하였으며, 향후 중앙아시아(2014년 예정)·서아시아·남아시아 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7개의 주제연구 프로그램(대중문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미·중 관계, 시민사회, 아시아센서스, 위험관리, 환경협력)을 운영 중이며, 2014년에는 동아시아 해역·초국경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등 연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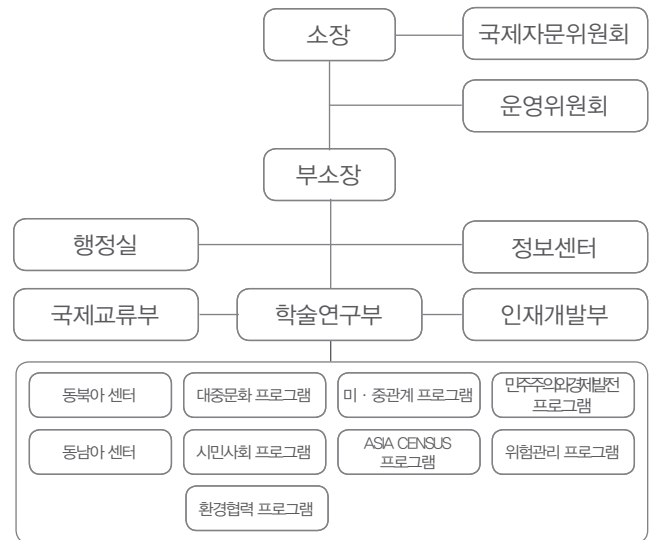
조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지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학술연구, 국제교류 및 인재개발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종합형 연구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는 2개의 지역연구 센터와 7개의 주제연구 프로그램, 이를 지원하는 3개의 전문 부서(학술연구부·국제교류부·인재개발부), 그리고 행정실과 정보자료실을 두고 있다. 2014년에는 중앙아시아 센터와 동아시아 해역·초국경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학술연구부는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국제교류부는 각 전문연구실이 추진하는 각종 국제협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관련한 학자·학생, 기업·정부 소속 전문가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개발부는 아시아 관련 연구 및 지역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차세대 글로벌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연구소는 국제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검토, 시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전공 분야 교수들이 참여하여 학제적 연구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정·관계, 산업계의 원로 및 명사로 구성되어 연구소의 발전과 사회 공헌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도



소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부소장 김청택(심리학과)

학술연구부장 홍백익(사회복지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출판위원장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동북아시아 센터장 정근식(사회학과, 평의원회 의장)

동남아시아 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대중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이준환(언론정보학과)

미·중 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위험관리 프로그램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환경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ASIA CENSUS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학술연구 공석기(선임연구원)

국제교류 김종철(선임연구원)

출판 신혜선(선임연구원)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는 국내의 취약한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하여, 국내 학계 및 경제, 산업계의 증대되는 요청에 따라 아시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의 성장발전에 관련이 되는 문제들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3년 SNUAC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별 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식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며, 아시아 권역별, 국가별 기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 또한 추진했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교류를 비롯해,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신진 학자의 저술 작업 및 박사논문 작성 등을 지원했다.

특히 SNUAC는 '아시아 연구의 허브'라는 장기 비전 위에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 간 긴밀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 초기인 만큼 아시아 지역 및 주제 연구가 미진하게 진행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남아시아 센터의 특성화가 그 예이다.

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아시아 5개 지역연구 센터(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구축과 다양한 주제연구 프로그램(아시아센서스, 대중문화, 동아시아 해역·초국경 교류협력,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미·중 관계, 시민사회, 위험관리, 환경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3년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시아 센터는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의 냉전과 탈냉전'을 비롯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동북아 연구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동남아시아 센터는 '메콩유역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메콩 델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희망과 고뇌'를 주제로 아시아 청년 세대 가치관 분석과 아시아 문화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미·중관계 세미나시리즈와 《미·중관계 연구론》이라는 단행본 발간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발전 모델로서 협동조합 비교연구에 초점을 맞춘바, 이 연구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공동 연구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한국 NGO센서스 조사를 준비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 연구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를 진행하였다.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국제 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Journal of World Trade》(SSCI급 저널)에 'Understanding Non-litigated Disput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을 게재하였다. 또한 《국제 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라는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전 지구적인 토지황폐화 문제 및 경제성 평가를 연구하고 있다. 또 한·몽고 생태학 워크숍 및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다양한 경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변화와 동향을 측정하는 서베이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동북아시아 센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즉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과 한반도의 중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평화로운 질서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연구, 동북아시아 협력과 공동체론 연구,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연구 등 정치군사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학술연구활동

동북아시아는 냉전이란 공통의 기억을 바탕으로 갈등과 고통, 협력과 경쟁의 역사를 거듭해왔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질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냉전의 역사를 탐구해야 할 때다. 동북아시아 센터는 동북아시아 냉전사의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의 기원을 탐구하고,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3년은 이를 위한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자생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수행해왔다.

2014년에는 자료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소장 자료 등을 수집하여 독자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장기적인 연구 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연구기반구축

2013년에는 동북아시아 센터의 1차년도 연구 과제로서 총 2회의 학술대회와 1회의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동북아 연구의 성과를 축적,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3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센터는 2014년에도 동북아시아의 공통의 기억이자 갈등의 근저에 깔린 냉전의 상처와 극복을 주요 주제로 삼아 평화로운 동북아 미래 질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 탐구를 지속할 것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2013년은 동북아시아 센터가 연구 센터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장기적인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국내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인바, 동북아시아 센터는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관련 연구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원테첸(중국 인민대 학장), 추이즈위안(칭화대 교수), 에드워드 장(미국 UC Riverside 교수) 등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제국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명윤리'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17일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한·중·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 학술회의 (2회)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2013.9.27)

제국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명윤리(2013.10.30)

강연 및 워크숍 (4회)

한국 항공의 기원(에드워드 장, 미국 UC Riverside 교수)(2013.10.7)

100년의 급진: 중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전망(원테첸, 중국인민대 학장)(2013.10.17)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냉전의 재조명(콜로카움)(2013.11.25)

중국 충칭모델의 사회적 기반과 전망(추이즈위안, 칭화대 교수)(2014.2.27)

현지 조사

대만 금문 및 중국 사면 현지조사(2014.1.4-1.12)

사람들

디렉터: 정근식(사회학과)

운영위원: 신욱희(정치외교학부), 안덕근(국제대학원),
한경구(자유전공학부), 이정훈(중어중문학과),
김창엽(보건대학원)

자문위원: 쑨거(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강성현(아시아연구소), 김민환(아시아연구소)

국제협력기관 : 중국 사회과학원, 대만 중앙연구원, 일본 와세다대, 미국 하와이대 아시아학과 및 동서문제연구소, 미국 미시간대 동아시아학과, 독일 베를린대 한국학연구소



정근식 동북아시아센터장과 '한국 항공의 기원'에 대해 발표한 에드워드 장 UC Riverside 교수(2013.10.7)



원테첸 중국 인민대 학장이 '100년의 급진: 중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2013.10.17)

동남아시아 센터

국가를 넘어 지역 단위의 전문적 지식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거점 센터의 구축을 지향한다. 동남아 해양부 이슬람 문화권과의 경제협력 및 동남아 대륙부 메콩 유역권과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연구, 교육, 국제교류 활동에 힘쓰고 있다. 집중적인 현지 조사, 기업 대상의 지역 설명회, 이슈 페이퍼 및 정책 보고서 발간 사업도 운영 중이다.

연구기반구축

동남아시아 센터는 2013년 3월부터 '메콩 유역 수자원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모색'을 주제로 총 7명의 연구진이 지난 1년간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메콩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6개국(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메콩 유역 국가들과 한국 간 개발협력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센터는 이러한 필요에 주목, 동남아 지역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활동과 현지 조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1년차 연구활동의 핵심은 크게 1)메콩 유역 현지 조사를 통해 현지의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다양한 연구 및 사업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국내 전문가 초청강연 및 내부 워크숍을 통한 연구진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되었다.

※동남아시아 센터 사업 중 동남아 해양부 이슬람 문화권 연구 관련 내용은 신흥지역 연구 사업(27쪽) 참조

네트워크기반구축

메콩 유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현지에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남아시아 센터는 2013년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2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자료 수집은 물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1차 현지 조사는 2013년 8월 18~30일에 진행되었는데, 이요한 외 3명이 라오스의 비엔티엔, 사나부리와 태국의 방콕 에너지광산국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IFC, MRC, EGAT, International Rivers, MEENET, ICRD 콘퍼런스 2013, 쯔라롱컨대학 아시아연구소, 사나부리 직업학교 등의 기관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차 현지 조사는 2014년 2월 3~15일에 윤순진 외 5명이 베트남의 호치민,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씨엠펜, 라오스의 시판돈을 방문하여 MRC, ADB 등의 기관을 비롯해 톤레삽 호수와 돈사홍 댐 등 연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술연구활동

동남아시아 센터의 학술활동은 크게 전문가 초청강연과 학술 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문가 초청강연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총 3회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 워크숍은 동남아시아 센터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메콩 지역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과제에 대한 상호 토론을 위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14년에는 2013년에 축적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출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초청강연 (3회)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의 중장기 협력 방안(김태윤, KIEP)(2013.05.16)
동남아 개발수요와 ODA 정책과제(권율, KIEP)(2013.10.28)
메콩 경제벨트의 잠재력과 중국의 영향(심상형, POSR)(2013.12.02)

학술 워크숍 (6회)

라오스의 메콩 이슈와 전략(이요한)(2013.5.9)
메콩유역 수자원 개발의 정치학(엄은희)(2013.5.23)
Old and new hydropower players in the Mekong region: agenda and strategies | 돈 사홍 댐과 관련된 시민 운동(이수연, 장예림)(2013.6.18)
The River of Life: Changing Ecosystem of the Mekong Region(Yos Santasombat)(이요한)(2013.9.23); (장예림)(2013.10.7)
돈사홍 댐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이수연)(2013.11.11)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연구원: 박수진(지리학과), 윤순진(환경대학원),
이요한(라오스 수파누봉대 국제경영학과)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캄봉플러 주민 인터뷰(씨엠립, 캄보디아, 2014.2)



아시아개발은행 방문(프놈펜, 캄보디아, 2014.2)

대중문화 프로그램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문화가 삶의 총체’라는 인식 아래, 현재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과 욕망, 가치, 세계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일본·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상 세계와 그 투영인 대중문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초기 3년간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꿈과 고뇌’라는 주제를 설정, 현재 빅데이터·설문조사 및 질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 중이다.

연구기반구축

아시아인들이 스스로를 ‘아시아인’으로 상상하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아시아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욕망, 가치와 세계관에 주목하고,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한국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것이 투영된 대중문화의 비교분석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학술활동은 물론 국제적 비교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중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 청년들의 꿈과 고뇌를 이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양적 설문조사, 질적 담론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 청년들의 일상 대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심 키워드의 경향을 파악하고, 청년 세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중·일의 ‘청년 담론’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탐구하였고, 한국을 중심으로 담론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들 청년은 ‘생존’이라는 문제 공간에서 형성된 세대라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는 비교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연구센터로의 장기적 확대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공동연구 및 교육 국제화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2013년 3월 21일에는 동경대 시게토 소노다(Shigeto Sonoda)교수가 서울대를 방문, ‘2013년 아시아 대학생 가치관 분석(5개국 이상 참여 예상)의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후 ‘아시아 바로미터’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공동의 지표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4년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한국 측 관련 문항을 삽입, 관련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며, 2017년 일본 청년연구 그룹(Japan Youth Study Group)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도 관련 문항을 삽입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시아연구소 대중문화프로그램 강연
亞洲研究所 大眾文化項目講座

**중국 대학생의 캠퍼스 생활 방식
- SNS 이용자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當代大學生的校園生活方式 — 基于人人網用戶的調查

강연교수 : 진젠빈
講座教授 : 金兼斌

중국청화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 담임원희 서기
清華大學新聞與傳播學院教授 / 黨委書記

홍콩 진후이대학 언론정보학 박사
獲得香港浸會大學傳理學院博士學位

연구방향 : 커뮤니케이션이론 및 연구방법
研究方向 : 傳播學理論與研究方法

언어 : 영어
語言 : 英文

날짜 : 2013년 11월 25일 (월) 12:00-13:30 | 장소 : 아시아연구소 406호
日期 : 2013年11月25日 (周一) 12:00-13:30 | 地點 : 亞洲研究所 406室

문의전화 : 02)880-2592, 010-9213-3337
諮詢電話 : 02)880-2592, 010-9213-3337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활동

대중문화 프로그램의 학술행사는 국제 컨퍼런스와 강연, 내부 워크숍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국제 컨퍼런스는 연구 성과 발표는 물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정으로서 한·중·일 3개국에서 각 1회씩 진행되었는데, 한국에서는 2013년 7월 25일, 한·중·일의 교수 7명이 참여하는 <Dreams and Agonies of the “Chung nyun(青年)” in China, Japan, and Korea>라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청년 세대 연구와 관련된 각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3년 11월 25일에는 중국 당 서기를 겸하는 칭화대 언론정보학부의 진젠빈(金兼斌)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대학생들의 SNS 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고, 12월 26일에는 <우리는 DC>의 저자 이길호 씨를 초청, 청년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 문화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2회의 내부 워크숍을 통해 청년 연구를 위한 문헌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켰다.



Dreams and Agonies of the “Chung nyun(青年)” in China, Japan, and Korea 워크숍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리춘링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2013.7.24)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 컨퍼런스 (3회)

2013 East Asia Chung nyun(青年) Studies Workshop: Dreams and Agonies of the “Chung nyun(青年)” in China, Japan, and Korea(2013.7.25)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중국대학생 직업 생활 및 가치관연구그룹> 공동 워크숍 참석(2013.11.8)

일본청년연구그룹(Japan Youth Study Group) 공동 워크숍 참석 (2013.12.14)

특별강연 (2회)

중국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 패턴: 중국 페이스북 人人網 이용자들이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진젠빈, 칭화대 교수)(2013.11.25)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디씨(DC)에 관한 민족지적 보고서(이길호, 《우리는 디씨》저자, 2013.12.26)

내부 워크숍 (2회)

청년주제 자료 리뷰 1,2차 (2013.11.13,11.28)

사람들

디렉터: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한규섭(언론정보학과)
김홍중(사회학과), 신혜선(아시아연구소)



일본 소피아 대학에서 열린 일본청년연구그룹과의 워크숍에서 이준환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2013.12.14)

미·중관계 프로그램

‘21세기의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복합적인 관계 및 전 지구적, 지역적 함의에 대해 이론적,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미·중 관계 월례 세미나’, ‘미·중 관계 학술 워크숍’, ‘미·중 관계 서지 데이터베이스 작성’, ‘미·중 상호인식 프로젝트: 19세기와 21세기의 비교’ 등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미·중 관계 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이 있다.

연구 및 네트워크기반구축

미·중관계 연구프로그램은 미·중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적·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연구자들 간 활발한 정책토론과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미·중 관계 영역의 우수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안을 공유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학술 및 정책적 이해를 제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2013년에는 총 3회의 미·중관계 세미나를 주최하여 문홍화(门洪华, 중국 중앙당교 교수), 우신보(吴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Srikanth Kondapalli(인도 네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등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 강연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술연구활동

미·중관계 세미나 시리즈와 더불어 더욱 깊이 있는 정책토론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학술적 견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多)세션으로 구성된 학술 워크숍 시리즈를 기획, 2013년에는 2회의 학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일본 동경대학교의 대안정책연구소(PARI)와의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아시아 연구소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학술 워크숍 시리즈를 기획할 예정이다.



제1차 한-일 미중관계 워크숍 “Korea-Japan Dialogue on The Rise of China, US-China Relations, and Security in East Asia”(2013.11.8-9)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우신보(吴心伯) 강연 “On the New Pattern of Major Power-Relation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US-China Relations(2013.10.14)

학문후속세대양성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의 미·중관계 학자들이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학술계의 연구 트렌드에 걸맞은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기획으로 지난 2014년 1월 8일~11일에 홍콩중문대학교에서 열린 <제 10회 국제 대학원생 중국연구 세미나(第十屆國際研究生“當代中國”研討班)>에 미·중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3명이 참여하여 연구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미·중관계 세미나 (3회)

중국의 관점에서 보는 미국(中国对美国的认知) (먼홍화(门洪华) 중국 중앙당교 교수)(2013.9.23)

On the New Pattern of Major Power-Relation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US-China Relations(우신보(吳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2013.10.14)

Jockeying for Influence: Emerging Equations between China, US, and India (Srikanth Kondapalli, 인도 네루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2013.11.7)

미·중관계 학술 워크숍 (2회)

Korea Japan Dialogue on The Rise of China,US-China Relations, and Security in East Asia (제1차 한일 미·중관계 워크숍, 일본 동경대 대안정책연구소 공동 주최)(2013.11.8-9)

한국, 미국, 중국에서의 미·중관계 연구의 평가(국내 워크숍)(2013.12.11)

단행본/학술지 논문 (각1건)

《미·중관계 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출간확정)

China's Evolving Views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1953-2012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SSCI 학술지)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rogram on US-China Relations

No. 2

“On the New Pattern of Major Power-Relation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US-China Relations?

우신보(吳心伯) 교수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일시: 2013년 10월 14일 (월)12:00
장소: 아시아연구소 406호
영어강연, 중식제공

中美關係研究中心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연구원: 조동준(정치외교학부), 신성호(국제대학원),
최우선(국립외교원), 김애경(명지대학 중국어과)

국제자문단: Jia, Qingguo(贾庆国,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Alan D. Romberg(Simpson Center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David Shambaugh(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Sun, Zhe(孙哲, 칭화대 미-중센터 소장),
Wu, Xinbo(吳心伯, 푸단대 미국연구소 소장)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발전모델을 선진국의 발전궤적과 비교해 분석하고,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발전모델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연구와 관련된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대표 사업으로는 해외 전문가의 초청 및 국제 공동 워크숍 개최, 특별강연 및 콜로키움 개최, 그리고 시민사회 관련 연구자, 전문가들과의 국제교류 및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향후 연구관련 도서의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학술연구활동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1차년도 중점 연구로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협동조합 연구를 선정하였다. 2013년에는 학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고 연구의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초청강연 및 워크숍을 통해 연구의 이론적, 경험적 기반을 공고히하는 한편,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피터 우팅(UN 사회개발연구소 부소장) 박사를 초청하여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강연을 개최하였고, 총 3회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을 위시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혼종성’에 주목해 이를 토대로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연구 지원사업에 신청, 최종 선정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보다 체계적인 협동조합 연구를 위해 소속 연구진들 간의 내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 연구 기반 구축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역량 구축에 힘을 쏟았다. 2013년에는 총 15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경향을 위시해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국가별 협동조합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개념의 구체화 와 더불어 연구 및 비교 범주를 설정했으며,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 선택에서 큰 진전을 거뒀다.



연구 및 네트워크기반구축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연구에 필요한 자립적 센터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새로운 사업 선정에서 예산확보 측면뿐 아니라, 기초연구 단계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연구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사회개발연구소(UNRISD), 국제정치학회(IPSA),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및 유럽 사회적 경제 연구소(EU-RICSE), ICOOP 협동조합연구소, ICOOP 생협사업 연합회,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소 등 국내외 학술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추후 연구 발전에 필요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석학초청 강연 (1회)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피터 울팅, UN사회개발연구소 부소장) (2013.10.11)

학술 워크숍 (3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협동조합 연구(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13.12.7)

Enhancing Human Security: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in South Korea(제주평화연구소 주최, 김의영 교수 발표)(2013.12.6-7)

미우라 히로키(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초청 토론: 한중일 협동조합 관련 법제 비교 및 패널 토론(2014.1.12)

내부 세미나 및 실무회의 (15회)

연구 방향 회의(2013.4.18, 5.23, 5.28, 6.12)

학술회의 참석: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실, 운동, 과제(2013.7.16)

연구 세미나: 금융위기와 협동조합(2013.8.19-20), 사회적 경제의 개념(2013.8.28), 실무회의(2013.9.16), 사회적 경제의 함의(2013.9.25),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2013.10.12), 영국 사례 발표(2013.10.24), 스웨덴 사례발표(2013.11.11), 영국·스웨덴 비교 (2013.11.22), 사회적 기업 '빅이슈'(2013.12.26), 실무회의(2014.2.3)

사람들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연구원: 권형기(정치외교학부), 안도경(정치외교학부), 한신갑(사회학과), 권현익(인류학과)



Miura Hiroki 교수(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초청 학술 워크숍, 토론에 앞서 Miura Hiroki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2014.1.12)



Peter Ullting 박사(유엔 사회개발연구소 부소장) 석학초청강연, Ullting 박사가 사회적 경제의 세계적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2013.12.7)

시민사회 프로그램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 및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다양한 운동부문, 지역, 그리고 전략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 국제협력 및 대안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노력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정책 제언 서비스까지를 목표로 한다.

학술연구활동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환경, 인권, 노동, 농민, 여성, 평화 등)를 '정의 프레임'으로 설정해 그 원인을 찾아 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연구 중이다. 더 나아가,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성장 발전 경험이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의 측면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연구'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물론 지구 시민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변천에 대한 비전, 목적, 사업, 활동영역, 사람, 지역, 역사, 연대활동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는 작업으로, 《2012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20개 운동 영역 총 11,934개 단체에 관한 자료를 국내 최초로 DB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1단계 연구 결과를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국제 워크숍>(2013.11.8)과 <한국 사회학회 2013년 후기사회학 대회>(2013.12.20)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국무총리실 지원 '2014 NGO 센서스'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이를 위한 '시민사회 센서스(pilot study)'를 수행할 예정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연구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국제 학술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2013년에 'Comparing Social movements in East Asia'라는 주제로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홍콩 중문대학교(4.20)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1.8)에서 주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일본 소피아대학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일본 소피아 대학과 함께 '시민사회의 초국적 과정에 대한 동학(Dynamism)'이라는 주제로 한·일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한·일 협력의 연구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oster is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itled "Comparing Social Movements in East Asia" organized by the Civil Society & NGOs Program at SNUAC. The conference is held on November 8, 2013,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Room 303)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e poster lists several sessions with their respective topics and speakers:

- Session 1 (10:00 - 12:00): Chinese Issues**
 - Cultural Capital and Anti-dam Movement in China* by Yan ZHOU & Kaiman CHAN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Japanese Resistance: the Case of People Power* by Vincent NG & Kerman CHAN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Labor Collective Protest in China: Case Study in Shenzhen* by Heng WUONG & Xiao BAI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Structure of Contentious Politics for Land: Wulumu As a Case* by Ruzhi ZHOU (Shanghai Normal University)
- 12:00 - 1:00: Faculty Luncheon SNUAC**
- 1:00 - 1:30: Why Do They Protest? A Meaning Approach to 1954 and 2012 Anti-Nuclear Campaigns** by Dai Noriyo (Sophia University)
- Session 2 (1:30 - 1:50): Japanese Issues**
 -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NGOs in Japan* by Yusuke Fujita (Nagasaki University)
 - New Generation's Labor Movements in Japan: Multi-issue, Various and Non-Regular Employees* by Harumichi Kiyama (Tokyo University)
 - Maintaining and Frame Resonance in the Language of Social Movement Groups Comparing Three-Mile Island and Fukushima* by Risa Maruse (Sophia University)
- Coffee Break (1:50 - 1:55)**
- Mapping Korean Civil Society Today** by Hyeon Dae Il & Suk-ki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ssion 3 (1:50 - 1:55): Korean Issues**
 -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Revisited* by Suk-ki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eace Island Policy and Peace Movement in Jeju Island* by Jaewung Shin (Jeju University)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Korean Civil Society in East Asia* by Inyooem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act information: Date: 8 November, 2013. Venu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Rm. 303). Tel: 880-2691 | skong@snu.ac.kr

학문후속세대양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 월례 세미나를 2013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초국적 정치와 사회운동'이란 주제로 관련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로, 2013년에만 총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 동향을 자료집으로 제작하였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학술워크숍 (2회)

제1회 Comparing Social Movement in East Asia: Japan, Korea, China 참석(임현진, 공석기, 정영신)(2013.4.20)

제2회 Comparing Social Movement in East Asia: Japan, Korea, China (2013.11.8-9)

국내학술대회 발표 (1회)

2013 한일 장신대 협동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공석기)(2013.10. 24)

국제학술대회 발표 (1회)

Enhancing Human Security –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in South Korea(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공동주최)(2013.12.6-7)

인재 양성 활동 (4회)

대학원생 월례 세미나 '초국적 정치와 사회운동'(2013.8.26, 9.27, 11.28, 12.6)

저술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임현진 · 공석기 공저, 나남출판, 2014.2)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정영신(제주대 연구원), 홍일표(국회의원 보좌관)



1차 한중일시민사회운동비교 국제워크숍, 임현진 교수, 홍콩중문대(2013.4.20)



2차 한중일시민사회운동비교 국제워크숍, 서울대 아시아연구소(2013.11.8)

환경협력 프로그램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간이 되는 주요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지 황폐화의 경제성 평가, 아시아적 환경관 및 토지이용관의 정립 및 적용, 지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나타나는 환경변화의 원인과 결과뿐 아니라, 사회의 취약성과 적응 메커니즘의 이해와 분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에는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환경 정보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중요한 생태지역별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UNCCD가 주도하는 전세계 토지황폐화 경제성 평가(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ELD) 연구에서 아시아 지역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다행위자 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삼아 3가지 핵심 연구 분야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공간정보 데이터시스템(Asian Geospatial Data Base) 구축, 둘째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문 및 자연 환경의 통합연구, 셋째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전통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이론화 작업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그 내용을 이룬다.

학술연구활동

2013년도에는 아시아지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각종 공간정보 및 환경 자료, 그리고 사회경제 지표들을 저장해 관리할 수 있는 '아시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설계 및 서버 확보 등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제 기구 자료를 중심으로 19개 항목 총 45개의 공간정보 자료를 축적하였다.

ELD사업을 통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연구를 위해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2013. 6. 27), 이 성과를 ELD 이니셔티브 중간보고서로 출판하였다. UNCCD의 활동을 지원하고, ELD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와 아시아 지역 연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ELD사업을 위한 4군데의 사례연구 지역(몽골, 라오스, 북한, 한국)을 선정한 뒤 현장 연구를 진행 중인데, 사례연구를 위해 몽골과 라오스의 파트너들을 확보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2013.6.27)



제1회 아시아 풍수학회 답사 : 경기도 구리시 소재 동구릉 영릉의 음택 풍수 답사(2014.1.25-26)

연구기반구축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복잡계 지표시스템 연구회'를 구성하여 집담회 개최 등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아시아 풍수 워크숍'을 운영함으로써 전통과 미래를 결합하는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모두 3회에 걸쳐 '복잡계 지표시스템 연구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년 1월 24~26일에는 아시아연구소 주관으로 '제1회 아시아 풍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중국의 운남성에서 '제2회 아시아 풍수 워크숍'개최를 앞두고 있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학술워크숍 (2회)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2013.6.27)
제1회 아시아 풍수 컨퍼런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공통의 인식들 정립(2014.1.24-26)

연구 세미나(3회)

복잡계 지표시스템 연구회 세미나(2013.12.13, 2014.1.8, 2014.2.5)

학술지 논문

박수진, 임종환, 이도원, 최진무, 구홍미, 정진숙, 안유순(2013)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행의 한계와 한국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연구>, 35-74쪽.



제1회 아시아 풍수 컨퍼런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공통의 인식들 정립(2014.1.24)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연구원: 이도원(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위험관리 프로그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권의 약진과 맞물린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세계 관련 경제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학술연구활동

위험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초기 2년간 국제경제질서 중 실물 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국제 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국제 통상체제에서 위험성 안정화의 조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World Trade>(SSCI 등재)의 47권 5호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 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저명 학술지와 저술을 통해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네트워크기반구축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연구팀 내 공동 연구와 더불어 국제 학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 연구진들이 진행 중인 공동연구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외 연구자 초빙 세미나를 통해 연구자들 간의 상호 협력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의 국제 학술대회와 7회에 걸친 국내외 연구자 강연을 진행하였다.

2014년에도 다트머스대학교 공동주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국제 교류와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2013년도 학술활동 성과

국제 학술대회 (2회)

KIEP-ECIPE-SNUJAC-GSIS Conference on Free Trade Agreements: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2013.5.23)

Workshop on Distributive Justice, Institutions, and Behavior(2014.1.17.-18)

강연 및 세미나 (7회)

Intermediate Goods Trade, Technology Choice and Productivity(Raymond Riezman, University of Iowa)(2013.3.14)

Entry Cost, Underemployment and International Trade(Raymond Riezman, University of Iowa)(2013.3.18)

Pay what you want: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at a doughnut shop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2013.3.20)

The Robust Selection of Rationalizability(Yi-Chun Che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2013.5.29)

Eliciting Private Information with Noise: The Case of Randomized Response (임우영,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2013.9.4)

Dynamic Moral Hazard with Persistent States(권수현, University College London)(2013.9.11)

Flexibility and Robustness in Mechanism Design(Timan Borgers, University of Michigan)(2013.10.17)

학술지 논문

박지형, 안덕근, 이지홍(2013). Understanding Non-litigated Disputes in the World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47권 5호, 985-1012쪽.

사람들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지홍(경제학부), 이석배(경제학부)

ASIA CENSUS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메타데이터 축적 및 관리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 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의 변화와 동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서베이를 개발 중이다.

연구 및 네트워크기반구축

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기초 자료센터의 구축이다. 자료센터란 다양한 양적·질적 형태의 경험 자료를 미시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등 거시적 수준에서 축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센터를 의미한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및 서베이 랩 운영을 목표로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진행하여, 12곳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흐름'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시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주제별 데이터 수집 및 자료 분석도 진행하였다. '흐름 및 관계'의 측면과 '속성'의 측면에 주목하여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취향 지도와 지역에 따른 차이, 사람들 간의 거리 등을 측정하였다. 아시아 국가 간 이주, 창조성, 산업·경제 변화, 외교 안보, 문화 교류, 사회의 질, 국가별 비교문화 심리 등 7가지의 세부 주제 영역을 선정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완료하고, 관련된 지표와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만에서 주도하는 아시안 바로미터(The Asian Barometer Survey; ABS), 일본 주도의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 세계 가치관 조사 등 기존 서베이의 운영 현황과 조사 항목의 구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서베이 랩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4년에는 이상의 기초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및 특집기획 언론 보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자료센터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아시아 서베이를 개발하는 연구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연구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향후 연구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이다.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연구원: 이재열(사회학과), 김정택(심리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종철(아시아연구소), 남은영(아시아연구소)



학술행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SNU 아시아 포럼>과 <열린강연>을 비롯해 특별강연, 워크숍, 콜로키움,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SNU 아시아포럼

<SNU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 시대를 선도해온 저명한 사회 인사와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로,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아시아 관련 학술 행사다. 2013년에는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와 한상일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 | |
|------------|------------------------------------|----------|
| 2013.4.18 | 한·일 양국의 역사를 다시 보다: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 | 미야지마 히로시 |
| 2013.11.14 | 일본 진보 지식인과 한일관계: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문제 | 한상일 |



한·일 양국의 역사를 다시 보다: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2013.4.18)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포럼

**일본 진보 지식인과 한일관계:
「세카이(世界)」와 한반도 문제**

한상일 국민대 명예교수

경력 사항 :

- 미국 Stanford 대학 객원교수
- 일본 동지사 대학 객원교수
- 미국 Princeton 대학 객원교수



주요 저서 :

- 일본전후정치의 변동, 법문사, 1997 일본우익연구(공저), 중심, 2000
- 일본지식인과 한국, 오름, 2000
- 일본행 시스템(공저), 일조각, 2006
-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공저), 일조각, 2006
-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세카이세계와 한반도, 기파랑, 2008
- 1910, 일본의 한국병탄, 기파랑, 2010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01동 명림홀(210호) 일시: 11월 14일(목) 13:30-15:30
문의: 880-2693 | snuac@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아시아연구소는 대중들에게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연구의 대중화 시대를 열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주제별 전문가 토론회인 <열린강연>을 독자적으로 개최하였다. <열린강연>은 사회 각 분야(학계·재계·정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를 패널로 모셔 관련 주제에 대한 풍성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별히 이 강연은 서울대 커뮤니티뿐 아니라 관악 주민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해, 참여자로 하여금 아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시각과 현안을 공유하는 공공의 장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에는 ‘아시아 시대, 중심을 가다’라는 표제 아래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는 변화의 중심들을 주제로 삼아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열린강연>시리즈의 내용은 책으로 발간돼 아시아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 | | |
|-----------|---|--|
| 2013.4.3 | 제1회 세계의 중심 아시아, 보편가치를 찾아서 (중국 편) | 패널: 김광억(서울대 명예교수), 정덕구(니어재단 이사장), 백영서(연세대 국학연구원장), 신봉길(한중일 3국협력기구 사무총장), 양일모(자유전공학부) |
| 2013.4.25 | 제2회 아시아, 분쟁과 화해의 현장을 가다 (동북아 편) | 사회: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패널: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양현아(법학과), 정재정(서울시립대), 천자현(고려대), 구민교(행정대학원) |
| 2013.5.9 | 제3회 아시아, 에너지 대안을 찾다 (일본 편) | 사회: 박수진(지리학과) 패널: 김명자(前 환경부장관), 백원필(한국원자력연구원), 서균렬(원자핵공학과), 이재열(사회학과) |



세계의 중심 아시아, 보편가치를 찾아서(2013.4.3)



아시아, 에너지 대안을 찾다(2013.5.9)

열린강연

| | | |
|------------|-------------------------------|---|
| 2013.5.23 | 제4회 대중문화 교류를 통한 연대를 찾아서 | 사회: 강명구(언론정보학과) 패널: 배국남(이투데이 부국장), 윤석호(윤스칼라 대표), 임명균(CJ E&M 전략기획팀장), 김수정(충남대) |
| 2013.6.4 | 제5회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 (베트남 편) | 사회: 오명석(인류학과) 패널: 설동훈(전북대), 최호림(서강대 동아연구소),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태미하(베트남 교민회 부회장) |
| 2013.9.27 | 제6회 내일을 여는 창, 아시아의 교육 | 사회: 이준구(경제학부) 패널: 신의형(자유전공학부), 이한길(중앙일보), 박지환(일본연구소), 송선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2013.10.17 | 제7회 아시아, 경제통합 중심을 가다 | 사회: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패널: 이선진(前 인도네시아 대사), 박번순(홍익대), 최경희(前 주아세안대표부), 김태윤(KEP 동남아시아 팀장) |
| 2013.10.30 | 제8회 아시아가 바라는 아시아, 아시아가 바라는 한국 | 사회: 전재성(정치외교학부) 패널: 이상현(세종연구소), 이승주(중앙대),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
| 2013.11.12 | 제9회 아시아시대 –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 사회: 임현진(사회학과) 패널: 김장실(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승(국립외교원 중국센터소장, 前 주중대사), 배명복(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승철(전경련 상근부회장) |



대중문화 교류를 통한 연대를 찾아서(2013.5.23)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2013.6.4)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2013.3.29)

발표: Yin Hong(중국 칭화대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과) / Wang Ji(중국 런민대 문화산업연구원) / 김익기(동국대 교양교육원) /
Saeko Ishita(오사카 시립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 임현진(사회학과) / 장원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김신동(한림대 언론정보학부) /
신현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강명구(언론정보학과) / 신혜선(아시아연구소)
토론: 이정훈(중어중문학과) / 임대근(한국외국어대 글로벌문화컨텐츠학과) / Qiao Chunyan(호서대 교양학부) / 정수영(아시아연구소) /
임학순(카톨릭대 한류대학원) / 김은미(언론정보학과) / 이기형(경희대 언론정보학과) / 박성현(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팀장)

KIEP-ECIPE-SNUAC-GSIS Conference on Free Trade Agreements :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2013.5.23)

사회자: 이창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덕근(국제대학원) / Patrick Messerlin(파리정치대 경제학과, 국제대학원)
발표: Bernard Hoekman(유럽 대학 연구소, World Bank) / Patrick Messerlin(파리정치대 경제학과, 국제대학원) /
Sebastian Miroudot(OECD) /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 Roy Chun Lee(중화경제연구원, 태국) / Minghui Shen(중국사회과학원) /
Deborah Elms(난양기술대, 싱가포르) / 안덕근(국제대학원) / Mitsuo Matsushita(전 WTO 상소기구위원)
토론: 강문성(고려대) /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섭(국제대학원) / 정인교(인하대) /
Bernard Hoekman(유럽 대학 연구소, World Bank) / Asif Qureshi(고려대)

UNCCD 대응을 위한 한국 네트워크 구축과 ELD 한국 워크숍(2013.6.27)

사회자: 이도원(환경대학원) / 박수진(지리학과) / 심국보(UNCCD) / Stefan Niederhainer(서울대)
발표: 이용권(산림청) / 박수진(지리학과) / 강신규(강원대) / 윤희중(국립산림과학원) / 정강호(국립농업과학원) / 추장민(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이인희(충남발전연구원) / 윤영균(국립산림과학원장) / Richard Thomas(UNU-INWEN, 토론토) / Stacey Noel(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나이로비) /
Ersin Esen(UNEP) / Mark Schauer(ELD Secretariat) / 문국현(뉴페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강호덕(동국대) / 양재의 · 임경재 · 김성철 · 김록영(강원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제: 초국가-지방적 맥락에서 다시 보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2013.8.22-23)

사회자: 박배균(지리교육과)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James Sidaway(싱가포르국립대) / Asato Saito(요코하마국립대, 일본) /
Jinn-yuh Hsu(대만국립대) / 지주형(경남대) / Jamie Doucette(Manchester대, 영국)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발표: Bob Jessop(Lancaster대, 영국) / Ngai-Ling Sum(Lancaster대, 영국) / 지주형(경남대) / 김도균(아시아연구소) / Jinn-yuh Hsu(대만국립대) /
박배균(지리교육과) / 김동완(서울시립대) / 장세훈(동아대) / Jenn hwan Wang(Chengchi대, 대만) / Jamie Doucette(Manchester대, 영국) /
James Sidaway(싱가포르국립대) / Carl Grundy-Warr(싱가포르국립대) / Chih Yuan Woon(싱가포르국립대)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박배균(지리교육과) / Do Khue(국제대학원) / Jim Glassman(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최영진(인문학연구원) / Asato Saito(요코하마국립대, 일본) /
손정원(런던대) / 신현빙(런던정치경제대) / 이상현(한신대)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토론: 백승욱(중앙대) / Anders Riel Muller(Roskilde대, 덴마크) / Szu-Yun Hsu (British Columbia대, 캐나다) / 조희연(성공회대) / Greg Sharzer(언어교육원) /
정근식(사회학과) / 해람(York대, 캐나다) / 신혜란(런던대)

경계에서 보는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2013.9.27)

Making Democracy Work Worldwide(2013.10.25)

Dynamic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Changing Societies and Values in East Asia(2013.10.25-26)

제국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과 생명윤리(2013.10.30)

러시아 극동 개발과 동북아 지역 협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2013.11.9)

Enhancing Human Security –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in South Korea(2013.12.6-7)

사회자: 임현진(아시아연구소)
발표: 김의영(정치외교학부) / 김종철(한양대) / 박병욱(청와대 서민정책 비서관)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 강민정(SK사회적기업가센터 부센터장) /
공석기(아시아연구소) / Anne Hilly(Business& Professional Women International BPW 연맹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임홍재(UN 글로벌컴팩트) /
Darren Southcott(제주위클리 편집장)
토론: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오영훈(제주미래비전연구원 원장) /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 김의영(정치외교학부) / 김종철(한양대) /
박병욱(청와대 서민정책 비서관)

제1회 아시아 풍수 컨퍼런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공통의 인식들 정립(2014.1.24-26)

국내학술대회

아시아 지역 주제연구의 쟁점과 현황(2013.5.22)

사회: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발표: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김형준(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토론: 장용규(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신윤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아시아 지역 주제연구의 쟁점과 현황(2013.11.22)

사회: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유인선(前 서울대 동양사학과)

발표: 최희식(국민대 국제학부), 오윤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난아(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김형종(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토론: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이상국(서강대 동아연구소), 김능우(인문학연구원),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콜로키움

Vietnam in the Context of East Asia(2013.3.26)

Nguyen Van Kim(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대 부총장)

Utilizing Different Social Capital in Different Social Settings: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ization Process of Japanese, Korean, and Taiwanese Multinationals in mainland China, 2001-2010(2013.4.4)

Shigeto Sonoda(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Is Asian Sociology Possible?: Challenges and Attainment of Three-year Project "Frontier of Comparative Studies of Asian Societies"(2013.5.7)

Shigeto Sonoda(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허허미륵과 허허부처를 말하다(2013.12.10)

임옥상(화가, 임옥상 미술연구소 소장)

비즈니스맨이 바라본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2014.2.17)

김선호(GCI Nutrient, Inc.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장)



Vietnam in the Context of East Asia(2013.3.26)



Is Asian Sociology Possible?(2013.5.7)

워크숍

Re-locating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in their Transnational and Local Context(2013.8.22-23)

Bob Jessop(Lancaster University)

The Rise of Global Elites? Top Managers in South Korea and East Asia Compared(2013.10.14)

Markus C. Pohlmann(Heidelberg University)

특별강연

미스터 신발왕(Give and Give... And Forget!)(2013.5.15)

송창근(KMK글로벌 회장)

주한 인도대사 초청강연(2013.11.19)

아시아연구소-인도 문화원 공동 주최

Vishnu Prakash(주한 인도대사)

12억 인도를 만나다(2013.11.20)

아시아연구소-인도 문화원 공동 주최

김도영(인도 델리대)

동아시아에서 평화는 사상이 될 수 있는가(2014.2.18)

아시아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제1회 아시아 평화세미나'

쑤거(중국사회과학원)

브라운백 세미나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 시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2013.6.11)

김도균(사회학과)

지구를 연구소로 들여오기: 일본 방재과학기술에서 지진 재해의 재현(2013.6.25)

이강원(인류학과)

Food, Culture, and Society: An investigation into the Culinary Landscape of Korea(2013.7.4)

David Kang(Dartmouth University)

이란 도시 젊은이들의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2013.7.23)

구기연(인류학과)

중국 고대 경계의식과 통과 의례(2013.8.13)

송진(동양사학과)

이백: 인간과 신선의 경계에서의 비애와 고독(2013.8.27)

임도현(중어중문학과)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被爆者) 되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 구성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2013.9.10)

오은정(인류학과)

외부 연구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적극적인 외부 연구 지원사업에 참여, 연구 역량 강화 및 학술적 기여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3년 현재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으로부터 4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건 등 총 5건의 연구 과제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 출범 후 지난 2010년 9월부터 연구 과제를 수행해왔으며, 2013년 8월에 1단계 3차 연도 사업기간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2단계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흥 지역 연구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 중이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역 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KF Global e-School 사업으로 국제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전임연구인력: 강주원(인류학), 공치(경제학), 신혜선(언문학), 최중호(정치학)

연구단계: 1단계 3차년도(2012.9-2013.8) - 2단계 1차년도(2013.9-2014.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 9월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을 출범하였다. 임현진(前 아시아연구소장)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사회대 교수 8명과 4명의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2013년 8월까지 1단계 3년의 사업기간을 마무리하였고, 9월부터 2단계 사업에 진입하였다.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연구재단이 대학 내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걸맞게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아시아 연구에 있어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1단계 3년간의 사업기간에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 연구 분야에서 아시아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경제 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활동에 매진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경제의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성과에 작용하는 비경제적 요인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와 워크숍, 강연을 주최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한·중·일의 대중문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단 구성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2013년 5월 2일에는 2명의 전임 연구인력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1단계 연구활동의 종합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 등 2권의 책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9월부터는 2단계 사업(2013.9~2016.8)에 진입하였다. 2단계 사업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mmunity in East Asia)'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2단계 연구는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공동체의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신흥지역 연구사업

과제명: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 연구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강윤희(인류학과),
나희량(부경대 국제통상학부), 전제성(전북대 정치학과),
조윤미(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인력: 백연정(경영학), 송경아(정치학), 엄은희(지리교육학),
최경희(정치외교학)

연구단계: 1차년도(2012.9~2013.8) - 2차년도(2013.9~2014.8)

신흥지역 연구사업은 동남아시아라는 신흥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현지 시장 진출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레이 문화권으로 구분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에 초점을 맞춰, 한국 기업들이 현재 큰 필요로 하는데도 쉽게 얻을 수 없는 현지 관련 심층적 지식을 한국 기업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역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슈 페이퍼와 정책 보고서도 발간 중이다.

먼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문적·대중적 관심의 확장을 위해 동남아시아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http://seacenter.snu.ac.kr>)를 2013년 5월부터 개설·운영해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동남아의 현지 문화 및 비즈니스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의 대중화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

2013년 5월에는 신흥지역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KMK글로벌 회장) 회장을 초청, '미스터 신발왕 Give and Give... and Forget!'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꿈꾸는 기업인들을 위한 동남아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및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제1기 인

도네시아 편(2013.6.13~14)과 제 2기 말레이시아 편(2013.11.28~29)을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원 대상으로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신흥지역 연구사업은 또한 출범 초기부터 한국 기업의 현지 경영 및 시장 진출 전략에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 각 주제의 성격과 전개 방향 및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는 이슈 페이퍼를 주기적으로 발간해왔다.

이슈 페이퍼

- 제1호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종업원들의 문화적 가치성향분석(2013.3)
- 제2호 -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역사와 현재(2013.6)
- 제3호 - 한류와 기업활동: 중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인도네시아 한류의 전망(2013.6)
- 제4호 - 인도네시아 경제 건설의 조속한 성취와 확산을 위한 마스터 플랜: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전망과 도전(2013.8)

정책 보고서

동남아 3개국 최저임금제 현황과 전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중심으로(2013.8)

이에 더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신흥지역 관련기관과 협력을 체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Malaysia)에 가입하여 현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였고(2013.1),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와 산학협력협약서를 체결하여(2013.5)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 및 교육연구 분야에서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2013.5) 연구 협력과 교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KF Global e-School Program

KF Global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핵심적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 관련 강의는 물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간 화상강의 방식으로 제공하며, 현지와 한국에서의 세미나, 워크숍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강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KF Global e-School의 특징이다. e-School 수업의 핵심이 되는 온라인 강의는 국내외 강의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아시아연구소는 2011년 이후 3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6개국 9개 대학에 28개의 국제 강의를 개설하고,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양방향적인 공동 강의와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강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화상강의와 함께, 여름·겨울방학 등을 이용한 현지 세미나 또는 국내 초청 워크숍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동경대·북경대 대학원생들의 3개국 공동세미나 강의(Media Studies in East Asia), 서울대와 칭화대의 공동 강의(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 등을 통해 각국의 학생들이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차이를 비교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서울대-칭화대 공동강의에서는 화상강의와 더불어 현지 방문을 통해 양국의 수강생들간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여 교류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아시아연구소는 e-School 사업과 기타 연구, 교류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다음 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3년도 강의 목록

봄 학기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Media Studies in East Asia(Joint lecture course with Peking Univ. & Univ. of Tokyo)

Socio-Cultural Traditions of Korea(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Korean-US Relations(Tübingen University, Germany)

가을 학기

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Joint lecture course with Tsinghua University, China)

Understanding of Korean Industry and Business(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Tübingen University, Germany)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Understanding Korean Society(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ietnam)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SSK(Social Science Korea) 사업

과제명: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무역협상 · 분쟁의 확산과 대응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지형(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이지홍(경제학부), 인덕근(국제대학원)

연구단계: 2차년도(2012.9-2013.8)-3차년도(2013.9-2014.8)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과제명: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한 몽골 산림 피복 및 변화탐지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KHONGOR TSOGT(아시아연구소)

연구단계: 1차년도(2013.9-2014.9)

일반 연구 지원사업

과제명: 협동조합의 정치경제: 연대와 효율의 혼종성(混種性 · Hybridity)에 대한 학제적 연구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권현익(인류학과), 미우라 히로키(한국관광대), 한신갑(사회학과)

연구단계: 1차년도(2013.9-2014.8)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우수한 아시아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 관련 기초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 독자적인 지식 생산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3년에는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내용을 발굴해 지원하는 자유 연구 과제 7건,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연구 주제를 지원하는 기획 과제 12건 등 총 19건의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성과는 출판 등을 통해 아시아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자유과제

- 다자개발협력 책무성(Accountability)의 아시아적 재구성을 위한 비교연구 - 김태균(국제대학원)
-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 정치 변동의 동학: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연구 - 강원택(정치외교학부)
- 메이지 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 박훈(동양사학과)
-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인류학적 접근 - 이현정(인류학과) 외
- 일제(日帝) 홀로코스트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 전경수(인류학과)
- 1880년대 조선과 청의 영토분쟁(국경회담)과 그 역사적 의미 - 김형중(동양사학과)
- 2+1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 신옥희(정치외교학부)

기획과제

- Developmental Politics in South Korea and Beyond - 장경섭(사회학과)
- Social Quality, Developmental Models and Asian Experience - 한신갑(사회학과)
- 고령화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조흥식(사회복지학과)
- 기후변화와 호주의 사회적 변동 - 박순열(아시아연구소)
- 대륙부 동남아에서 종교에 의한 경제발전 저해 - 정미경(아시아연구소)
- 두보(杜甫)의 명시(名詩) - 이영주(중어중문학과) 외
- 동아시아 국제사회-이념·권력·규범 - 장인성(정치외교학부)
- 뒤틀린 세계화 - 한국의 대안찾기 - 임현진(사회학과) 외
- 아시아 사회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 서문기(송실대)
- 인구변동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 - 신의행(자유전공학부)
- 인도의 사회경제적 열위층(OBC) 5대정책의 이해 - 최정욱(건국대)
- 일본과 독일 보수 지배체제와 정치경제체제의 역사적 전개 - 김수진(이화여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를 이끌어갈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진학자의 우수 논문을 출판으로 이어주는 신진학자 저술 지원사업을 비롯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자 양성을 위한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연구에 필수적인 현장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아웃바운드(Outbound) 참가자를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 연구자를 초빙해 학술 네트워크 구축하는 인바운드(Inbound)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생 포럼은 아시아 연구의 미래를 책임질 후속세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후속세대에게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신진학자 저술 지원사업

신진학자의 우수 논문을 출판으로 이어주는 저술 지원사업에서는 2013년에 5건의 과제를 선정해, 신진학자의 연구 결과가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김도균(사회학과)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계보: 개발국가의 저축동원과 재분배 정치

구기연(인류학과)

이란 도시 젊은이들의 '그들만의 공간' 만들기: 국가의 감정통제와 개인의 자아 구성

이강원(인류학과)

공공의 지구: 일본 방재과학기술과 지진 재해의 집합적 실험

송진(동양사학과)

중국 고대 경계 출입과 그 성격 변화: 통과통의에서 통행허가제도로

임도현(중어중문학과)

이백의 자아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우수한 아시아 연구자 양성을 위해 박사논문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국내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는 2013년 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민기채(사회복지학과)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복지체제 유형화 연구

오은정(인류학과)

한국원폭피해자의 '히바쿠샤(被爆者) 경계 넘기: 일본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히바쿠샤'를 만드는 과학, 정치, 그리고 관료주의

박정준(비교문화 협동과정)

북유럽 아시아 입양작가들의 디아스포라 문학 비교연구

Inbound / Outbound Program

아시아 연구에 필수인 현장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조사를 수행하려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에게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자료조사비 및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해외의 우수 연구자를 초빙해 학술 네트워크 구축하는 인바운드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도 선정자

선재상(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한인 디아스포라의 소재국 정치참여와 통합,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양수영(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시니세의 장소정체성과 전통의 보전, 일본 University of Tokyo

임시연(인류학과, 박사과정)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연구,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김도균(사회학과, 박사)

State-led Capitalism and Market-oriented Welfare System in East Asia,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Yevgeniy Khon(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

Economic Policy of China in the Southeast Asia

인턴십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경험을 결합한 연구인턴 제도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인턴 제도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시아 연구와 연관된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목표로는 연구 및 행정 교육을 통한 기초 역량의 증진, 인턴들 간의 협력을 통한 실무능력의 배양, 연구소 구성원들과 인턴들 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이 아시아 연구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규모 강의를 통하여 전수하고, 연구실무 및 연구행정의 기본 과정을 교육하며, 진행 중인 연구 프로그램에서 쌓은 실무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에 선발한 제1기 인턴 11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인턴 명단

위재영(칸터베리대, 경제학), 윤누리(서울대, 지구과학교육), 강주은(중앙대, 국제관계), 김용인(서울대, 사회복지), 김혜지(동경대, 환경연구), 박의현(서울대, 경제학), 변예슬(예일대, 역사학), 심재원(서울대, 독어독문), 조제연(서울대, 의류학), 최현정(연세대, 동아시아), 최희진(경기대, 경제학)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연구 전국 대학원생 포럼



아시아 연구의 미래를 책임질 후속세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의 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아시아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2014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 전국 대학원생 포럼'을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아시아 연구를 희망하는 전국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3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관심 연구 주제와 지역에 따라 교수 및 아시아연구소 박사급 선임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개별 1:1 연구 멘토링과 조별 공동연구, 연구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Presentation and Clinic,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특강, 지역별·주제별 최신 연구동향 안내 등 다양한 학술활동이 이뤄졌다. 참여 대학원생들은 예비모임과 연구논문 1차 드래프트 제출을 통해 사전에 조율된 그룹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첫 번째 대학원생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별기획사업

아시아연구소 – 사회과학대학 공동 학술 답사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회과학대학과 공동으로 학술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국제자문위원인 김영석 회장의 학술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동 학술답사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의 현장을 직접 만나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013년 하계 답사: 칭다오에서 떠오르는 동아시아를 보다

아시아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학술 답사가 중국 산둥(山東)성에서 2013년 8월 7~10일에 진행되었다. 양승목 학장을 비롯한 사회과학대학 교수 17명, 아시아연구소 관계자 10명 등 모두 27명(단장: 정근식 사회학과 교수)이 참가해 산둥 칭다오와 웨이하이 지역을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산둥 지역은 야오둥 지역과 함께 황해 경제권의 거점이자, 중국 발전의 근거지이다. 한국 기업 진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으로, 한·중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조선족의 이주 또한 활발하다. 21세기 새로운 동아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답사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산둥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변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먼저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한승현 총영사로부터 한·중 경제 협력의 실태, 산둥 지역 발전 계획과 전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칭다오 맥주박물관, 칭다오 독일감옥박물관, 남산 종교역사문화원, 장유 술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칭다오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영원무역을 방문해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답사 일행은 또한 웨이하이의 유공도(劉公島) 갑오전쟁박물관에서 청·일전쟁과 그것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현지에서 중국 해양대학교 조성국 교수를 초빙해 중국의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연구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현장 답사의 성과는 2014년 하반기에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2014년 동계 답사: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 그 조우의 현장을 보다

아시아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은 2014년 2월 10~14일 베트남 다낭·후에 지역에서 동계 학술 답사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학 교수 17명, 아시아연구소 관계자 5명 등 모두 22명이 참가한 행사였다.

다낭은 베트남 남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 및 항구 도시이자, 베트남에서 호치민·하노이·하이퐁 다음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격전지로서 치열한 전투가 많았던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답사 참가자들은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상처를 남긴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곳을 방문해 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호이안 구시가지 등을 방문하여 지역의 전통을 비롯해, 낱알이 발전하는 현장을 실감하기도 했다.

후에 지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1802년부터 1945년까지 베트남(응우옌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다. 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물들이 자리 잡은, 베트남의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답사팀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후에 사원을 비롯해, 티엔무 사원과

카이딘 왕릉 등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역사적 전통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후에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베트남의 현재를 만나기도 했다.

답사 마지막 날에는 다낭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두산비나(두산중공업)를 방문했다. 현지에 진출한 대표적 한국 기업을 방문함으로써 베트남 중부의 경제발전 전략 및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한국 기업의 활동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베트남 중공업의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한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현실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는 기회였다. 또한 미라이 학살사건 희생자 기념관을 마지막을 방문하여 이번 답사의 의미를 더했다. 미라이 학살은 베트남 전쟁 중인 1968년 3월 16일 남베트남 미라이에서 발생한 미군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대량 학살이다.

3박4일의 여정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과거와 현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었던 이번 답사는 신흥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은 지속적인 현지답사를 통해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기획보도: '이제는 아시아 시대'

아시아 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진행했다. 2013년에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이제는 아시아 시대'라는 특집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21세기 지구촌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큰 흐름에 주목하여 아시아 시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전 과제를 집중 진단하는 기획으로, 문명의 전환, 아시아의 보편 가치, 분쟁과 화해, 에너지 대안 모색, 대중 문화를 통한 연대, 이주 문제, 인재 양성, 경제 통합, 한국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10회에 걸쳐 보도하였다.

임현진(사회학과), 안청시·전재성(정치외교학부), 김광익·오명석(인류학과), 이준구·표학길(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강명규(언론정보학과) 등 10여 명의 교수와 박사급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중앙일보 기자들도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열어나가는 각 지역별 중심 국가를 방문하였다. 또한 관련 내용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한 <열린강연>과 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론과 함께 기사에 담아냈다.

1. 문명 전환기인가: 아시아, 서구 자본주의 뛰어넘어(5.24)
2. 공통의 가치를 찾아서: 한·중·일 장벽 허물기, 인본주의가 답(6.21)
3. 공존의 길 막는 장벽들: 이웃 상처 헤집으면 화해는 불가능(7.19)
4. 대안 에너지 찾기: 시민의 힘이 키운 일본 태양의 도시(8.9)
5. 인재 허브로 뜬 비결: 싱가포르의 동·서양 교육의 '융광로'(8.26)
6. 국가 간 이주 부작용 해법: 돌아오는 베트남댁... 눈물 대신 희망을(9.23)
7. 국경·정치 벽 넘는 문화교류: 지구촌 대중문화의 새 용광로, 중국(10.10)
8. 경제통합 현장, 아세안 가다: 중국 → 아세안 ... '세계의 공장' 임무교대(10.29)
9. 하영선이 말하는 한국 안보 구상: 동북아 질서 재건축 중 ... 분양 줄이지 말고 설계 동참을(12.2)
10. 우리 준비돼 있나: 문명 중심 동아시아로 ... 한국, 정신·물질적 대도약 절실(12.20)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 2013: 인도문화주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13년 11월 19~21일, '인도문화주간'을 개최하여 주한 인도대사 초청강연을 비롯해 영화 상영회, 미술전시회, 커뮤니티 페어 등 인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인도의 수교 4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인도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인도문화 주간'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추진하는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연구소는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에 대비하여, 인도를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참여형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도문화주간'에는 주한 인도대사인 비슈누 프라카쉬(Vishnu Prakash · 56)를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집트 경제상무 담당 공사, 인도 외무부 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프라카쉬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하며 인도와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일에는 20년간 인도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인도에 한국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에 인도를 소개해온 김도영 교수(인도 델리대 동아시아과)는

인도의 정치·문화적 변화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특히 계급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기존의 신앙 중심적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21일에는 '커뮤니티 페어'가 마련되어, 음식 체험, 인도 서적 전시, 요가 교실, 까탁(Kathak)이라는 인도 전통 무용과 발리우드 댄스 교실 등을 진행했다. 문화 체험은 주한 인도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서울대학교 내의 인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인도식 만두를 만들어보는 요리교실이나, 빠른 박자의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발리우드 댄스교실 등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도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되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임옥상 화백의 <허허미륵>과 <허허부처> 전시를 비롯하여 인도 동화 일러스트와 한국전쟁 중 인도군의 사진 전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발리우드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아시아연구소는 이번 인도문화 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에서는 다음 순서로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지역과의 문화 교류 행사를 계획 중이다.



출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정기 학술지인 <아시아리뷰>를 1년에 2회 발간하여 아시아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연구자 및 대중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학문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발간하고 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총서> 국문시리즈와 영문시리즈(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이외에 교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 등이 있다.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3권 1호(통권 5호)

기획: 역사, 문화

한·일 양국의 역사를 다시 본다: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 |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글로벌 배경 하에서 중국 영화산업 발전 추세 | 인홍(중국 칭화대 언론정보학부)

파플러 문화의 수집·공유·소비: '파플러 문화 뮤지엄'에 관한 고찰 | 이시타 사에코(오사카 시립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지역연구의 쟁점과 현황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 | 김형준(강원대 문화인류학과) ·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의 베트남 연구 | 이한우(한국동남아연구소)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 |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북리뷰

Sang-jin Han, ed.,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 What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Can Teach the World* | 박태균(국제대학원)

Min Gyo Koo,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 이석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리뷰> 3권 2호(통권 6호)

기획: 역사, 문화

지식인과 '신념의 전통': 《세카이》와 한반도 문제 | 한상일(국민대 명예교수)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 최희식(국민대 국제학부)

변경(邊界)과 과경(跨界): 동아시아 시선 속의 진먼(金門) 지역사(區域史) 연구 | 지양뵤웨이(진먼대 민난문화연구소)

지역연구의 쟁점과 현황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 김형중(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한국의 미얀마 연구 동향 | 오윤아(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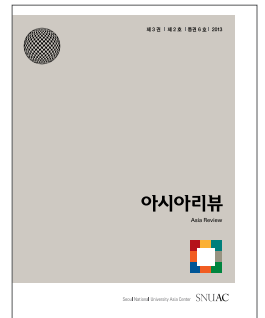
한국의 터키문학 연구와 번역 현황 고찰 | 이난아(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연구여행기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 현장답사기 | 안청사(서울대 명예교수)

북리뷰

이근 · 주경철 · 이준협 · 우경봉 · 옥우석 저,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 | 박태균(국제대학원) 조영남 저,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 전성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아시아연구소 총서

기초연구 시리즈

본 연구소는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및 통합주제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 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연구물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연구총서로 간행하는데, 기초연구 시리즈가 바로 그 결과물이다.

시리즈①은 이근 교수(경제학부) 외 10명의 필자가 참여한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이다. 2010년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장기 과제로 선정된 바 있는 연구 결과물로,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측면에서 한 국가가 왜 흥하고 망하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2013년 8월

19일 경제추격연구소, 경제발전학회, LG경제연구원 주최의 워크숍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리즈②는 구인회 교수(사회복지학과) 팀이 연구한 '생애사를 통해서 본 한국 홀리스 연구'를 2014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모노그래프 시리즈

아시아연구소가 후원하는 신진학자 저술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국·영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단행본 출판 지원사업이다. 시리즈①은 최형섭 박사가 쓴 《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 소설: '紅樓夢'까지》이다. 전통시기의 중국 소설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과 지식, 문화사에 관련된 논의를 담고 있다. 시리즈②는 한지은 박사의 《도시와 장소기억: 근대 역사 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시리즈③은 강민호 박사의 《두보(杜甫) 배율(排律)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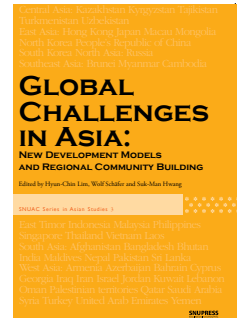
동남아연구 시리즈

동남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시리즈①은 권오승(법학대학원) 외 필자가 참여한 《국제개발과 법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이다. 시리즈②는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연구소 출판위원장) 교수 외 필자가 연구한 《미·중 경합과 동남아시아의 국제관계》를 2014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이 영어로 발표한 저술로, 현재까지 총 4권의 책이 기획되었으며, 이 중 3권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간됐다. 《New Asias: Global Futures of World Regions》(ed. Hyun-Chin Lim, Wolf Schäfer, and Suk-Man Hwang),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ed. Glenn D. Paige and Chung-Si Ahn),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ed. Hyun-Chin Lim, Wolf Schäfer, and Suk-Man Hwang)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와 더불어 아시아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모아 교외 출판부에서 출판한 결과물이다. 2013년에만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서》(임현진, 임혜란 공편), 《동아시아 대중문화소비의 새로운 흐름》(임현진, 강명구 공편),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임현진, 공석기 지음) 등 3권을 포함해 이제까지 모두 5권을 발간했다.



소식

개관식



2013년 5월, 관악 캠퍼스 안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솟았다. 그동안 '아시아 연구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연구공간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아시아연구소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교내외 인사 100여 명을 모시고 뜻깊은 아시아연구소 개관식을 가졌다.

아시아연구소 신축 공간은 158억원의 정부지원과 20억원의 민간지원(삼익약기와 영원무역)을 받아 연면적 11,732㎡(지하 2층 및 지상 6층) 규모로 완성되었다. 신축 공간은 아시아 연구를 목표로 함께 협력하는 연구기능의 복합체로, 단연 세계적 규모의 하드웨어를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이곳은 지하 2층의 주차장 공간과 지상 6층(식당 및 편의점, 대형회의실 및 강의실, 연구공간 및 교수휴게실 등)의 연구공간 및 지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사협의회

2013년 11월 1일, 아시아연구소는 전 구성원이 함께 SK행복빌리지를 방문하여 2013년 학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사협의회를 통해서 2013년 상반기 아시아연구소 운영을 결산하고 하반기 및 2014년도 계획을 검토한바, 각 센터 및 프로그램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 가 되었다.



'허허미륵', '허허부처' 작품 전시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인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장) 화백의 '허허미륵'과 '허허부처'를 아시아 연구소 실내 및 외부 공간에 전시했다(11.18~12.10). 새롭게 마련된 아시아연구소 실내 공간 고유의 특성을 잘 드러낸 '허허미륵',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담아낸 건물 외부의 '허허부처' 전시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평가 받았다.



후원 | 재정

연구기금

(주)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10억원) | (주)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10억원) | (주)SK씨엔씨(4억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학술교류기금, 1억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임현진 교수 (임길진 Fellowship, 1억원)

(주)SK텔레콤(5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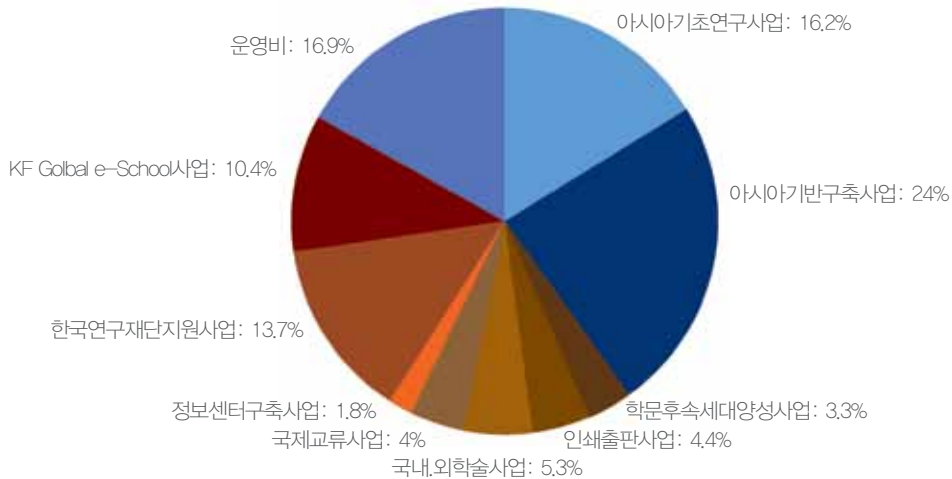
※2009년 이후 누적분임

재정

수입: 총 2,556,516,014 원



지출: 총 2,105,248,915 원



*한국연구재단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강명구) /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오명석) / 협동조합의 정치경제(김의영) / SSK 국제경제질서의 재편(박지형)

*KF Global e-School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외부연구비 교내 대응자금: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사업기간은 2013.9~2014.8. 까지이며 2013.9~2014.2까지 산정 *그 외 사업기간 회계 및 산정 기간 2013.3~2014.2.

연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바라본 관악산

- | | |
|----------|--|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초대 소장: 임현진 교수) |
| 9월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창립기념 제1회 SNUAC 국제 학술대회 개최 |
| 2010년 7월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
| 9월 |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
| 2011년 3월 |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
| 10월 | 제2회 SNUAC 국제학술대회 개최 |
| 2012년 9월 |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
| 2013년 3월 |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시작 |
| 4월 | 아시아 연구 대중화를 위한 <열린강연> 개최 |
| 5월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
| 9월 | 제2대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
| 9월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2단계 진입 |

사람들

*2014.3.31 현재

소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부소장 김청택(심리학과)

학술연구부장 홍백의(사회복지학과)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출판위원장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동북아시아 센터장 정근식(사회학과, 평의원회 의장)

동남아시아 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중앙아시아 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대중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이준환(언론정보학과)

동아시아해역 프로그램 디렉터 박배균(지리교육과)

미·중 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위험관리 프로그램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환경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ASIA CENSUS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사회학과)

운영위원

강명구 교수(위원장, 아시아연구소 소장)

김선구 교수(경제학부)

김진엽 교수(미학과, 인문대학 부학장)

김청택 교수(심리학과,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박찬욱 교수(정치외교학부, 사회과학대학 학장)

박충모 교수(화학부, 자연과학대학 부학장)

백창재 교수(정치외교학부)

왕한석 교수(인류학과)

임현진 교수(사회학과)

국제자문위원

김영석(3Plus Logistics회장)

김정구(주)엠스리미디어 아시아공동대표 회장)

박홍규(前 국립외교원 교수)

장호권(사상계 발행인 및 편집인)

정우성(前 벨기에 유럽연합대사)

최인수(前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

직원연구원

강성현(사회학)

김광익(서울대 명예교수)

김민환(사회학)

김용덕(서울대 명예교수)

김익기(동국대 교양교육원)

박영훈(주)SK 고문)

서문기(송실대 정보사회학과)

이요한(수파누봉대 국제경영학과)

이현선(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정영철(서강대 공공대학원)

최정욱(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홍일표(국회의원 보좌관)

황석만(창원대 사회학과)

KHONGOR TSOGT(환경학)

NU NU LWIN(모니와경제대 경영학과)

YAMATO YUMIKO(사회학)

선임연구원

강주원(인류학)

공석기(사회학)

공 치(경제학)

김종철(사회학)

남은영(사회학)

신혜선(언론정보학)

엄은희(지리교육학)

정미경(국제개발학)

최서연(인류학)

최종호(정치학)

최경희(정치외교학)

행정지원

이상환(실장)

김고운(학술)

박종홍(디자인)

백현지(국제교류)

이성민(홍보)

장보영(행정)

조하은(연구과제)

조한나(출판)

한주연(행정)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1동 아시아연구소

Phone : 02-880-2692

Fax : 02-883-2694

Homepage : <http://snuac.snu.ac.kr>

Facebook : <http://www.facebook.com/snuac>

E-mail : snuac@snu.ac.kr